

'성찰적 미래서'에 던지는 두가지 의문

개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하다

카오스 이론과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했다는 점은 이 책의 미덕이다. 그러나 개념의 엄밀한 적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그 첫째는 하나의 이론을 펼치기 전에 그 대상이 어느 계에 속하는지 확실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론에 대한 의문이다.

원로수학자이자 원형이론 연구자인 김용운 교수는 《카오스의 날갯짓》을 통해 카오스이론과 원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고 있다. 노교수의 저작을 읽고 후배교수로서 그 부단한 작업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반인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카오스이론을 동서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하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쉽게 풀어내고, 향후 한국과 일본의 최대 현안이 될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한다는 점도 감동적이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교육부문의 구체적인 방향제시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이 책의 압권이라 할 만하다.

민족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치관 혹은 역사의 전개양식과 문화를 꿰뚫는 패턴으로서의 '원형'과 단순한 모델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대상에 대한 설명인 '복잡계이론'을 통해 이분법과 결정론을 피하고 열린 사회에서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원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21세기를 고민하는 한국인이자 필독해야 할 저서로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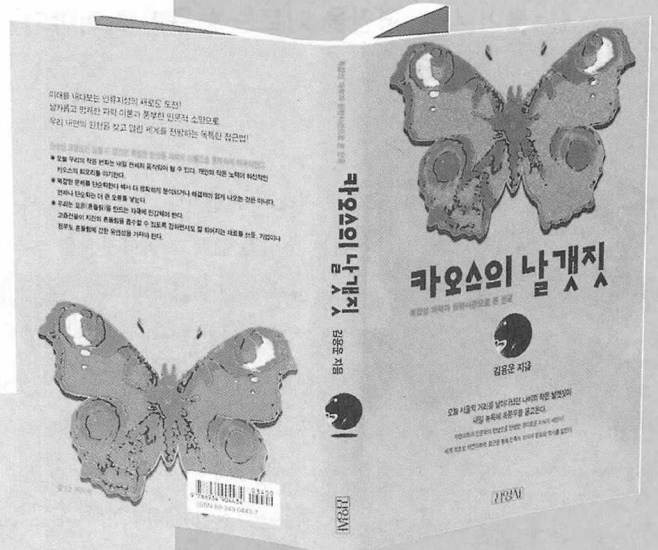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으로는(아마도 저자의 폭넓은 성찰에는 못 미치는 우문이었으나)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첫째, 카오스이론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카오스계의 반대개념을 인과론이 지배하는 단순계로 설정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카오스계의 반대개념은 코스모스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언급한 사회와 생물의 진화,

그리고 정신현상학 등이 양계 중 어느 곳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사회에 대해 카오스적인 적용을 한다면 사회 구성요소들 각각이 전체 사회변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그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된다.

예를 들어 IMF라는 경제적 상황을 해결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든 이미 무엇인가의 결과가 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어떤 행동도 용납된다는 모순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예인 진화론에 있어서도 진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류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카오스적인 입장에서 그 분류방식을 논외로 한다면 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즉 무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현상이나 이론을 얘기함에 앞서 그 대상이 카오스계의 것인지, 아니면 코스모스계의 것인지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책의 내용 중에는 변증법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변증법은 카오스계가 아니라 코스모스계를 지향하는 철학적 사유방식이다. 즉, 카오스계를 설명하는 변증법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양대립물이 몇 개의 규칙적인 법칙으로 상호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복잡계가 아닌 코스모스계의 영역에 속한다. 카오스모스계를 고려한 입체적인 서술방식이 보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원형론에 대한 의문이다. 원형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그 원형의 표현물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존재와 현상이라는 철학적인 테마에 대



김용운 지음/김영사/A5신/284면/12,900원

해 의문이 야기된다. 즉, 그 원형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모든 현상들에 그 원형이 침투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같은 원형 내에 다른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역사적인 실례로 티벳·몽고·헝가리 등과 같은 동구권의 국가들은 유목국가에서 종교국가 혹은 농업국가로 그 민족이 분열되면서 한 민족에서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진 경우며 아직까지 유목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부류도 있지만 다수는 농업국가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같은 민족임을 알고 있으나 서로에 대해 부자연스러워한다. 이유는 원형보다는 17~19세기까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오는 존재론적 역사를 지낸 탓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본다면 원형이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든다.

두가지의 의문을 남기더라도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많다. 그 풍부한 자양분에 접하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이 책이 훌륭한 조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해본다.

공성진

현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백연구재단 소장. 저서 《눈을 뜨고 꿈을 쓴다》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21세기 한국과 한국인》 외.